

기호일보

[뉴스](#) [오피니언](#) [인천](#) [경기](#) [지역](#) [스포츠](#) [사람과 사람](#) [기호TV](#)

① x

듀얼 케겔로 운동 효과 2배

이거 정말 물건이네요!

웨이브케어 V10

구매하기

[홈](#) > [사회](#) > [인천](#)

부양 책임 떠넘기기... 가족마저 등돌려

(하) 부양의무제, 장애인도 가족 아닌 '집'

양광범 기자 | 입력 2012.04.20 | 댓글 0

가 가

경제 능력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다른 가족의 부양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양의무제도가 장애인들의 자립을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인천지역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부양이 가능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있든 없든 무조건 가족이 부양해야 하는 것이 부양의무제로, 이 제도가 장애인의 자립을 방해하고 방치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부양의무제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 개인의 자립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장애인이 포함된 가족 중 상당수가 장애인을 방치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는 데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버리는 등 비극적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계양구에 거주하는 A(20·지적장애 3급)씨의 경우 어머니가 활동보조인으로 월 50만 원의 소득이 있는데도 소유의 보증금 3천만 원의 전셋집이 있다는 이유로 성인이 되면서 아동수급자에서 탈락해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아버지와 함께 남구에 거주하는 B(21·자폐성 1급)씨의 경우 아버지의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수급권을 신청하고 독립하고 싶어도 부양의무자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집을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빈곤층을 가족이 책임지라고 하는 부양의무제도가 가족관계의 파탄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당사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Google 광고

이 광고 그만 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①

최신뉴스

영흥 에코랜드 2년째 방치에 '가슴앓아'

↑

이 앓는 가족들이 장애인들 실제 무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듀얼 케겔로 2배

이거 정말 물건이!

웨이브케어 V10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좋아요
0



훈훈해요
0



슬퍼요
0



화나요
0



후속기사원해요
0



양광범 기자 ykb@kiho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고교 체험학습 답사는 교감 인솔은 교장... 해외여행 나눠먹기?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출구 없이 진퇴양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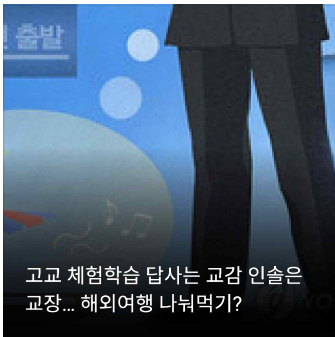
펜싱협회, 올림픽 남자 사브르 국가대표 '편파 선발' 의혹

제2순환 고속도 인천~안산 2구간 대안노선도 'NO'

'벌써 여름'... 주말 이른 바닷가 찾은 시민들

미술관으로 변한 해운대

레드카펫 밟는 '베테랑 2' 제작진과 출연진



기사 댓글 0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 로또 낙첨용지 틀렸다고 버리지마! 뒷면 "QR코드" 속 당첨번호 보여..!?
- 로또 당첨 쉽다..."용지" 뒤쪽 자세히보니 1등 번호가!? 6, 22...
- 허리협착증, 5분만 "이것" 해라! 통증 사라져.. 병원 갈 필요없다!

• GH, 내달 26일까지 노후 주거지 가로주택 정비사...

케겔운동 하지마세요

광고 웨이브케어

소방단기 수강료환급 프리패스

광고 소방단기

월 1만원대 스피킹 챌린지

광고 스팅

진짜 작가 데뷔하고 싶다면?

광고 창작의날씨

막힌다리 뺨 뚫어주는 플리오

광고 플리오

세안 직후 두방울 시술 유지앰플

광고 NARINFLA

미래가 달라집니다, 한국경제

광고 한국경제신문

아파트 입주청소

광고 숨고

밀당피티

광고 밀당PT

클럽아트코리아 무료제공

광고 클럽아트

닥터원트 · 멜팅드림

광고 닥터원트

델리블리 · 브로우팅

광고 델리블리

다이렉트 · 암보험

광고 삼성화재

오늘의 포토



인기뉴스

1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 인천지역 곳곳...

케겔운동
하지마세요

광고 웨이브케어

진짜 작가 데뷔하고
싶다면?

광고 창작의날씨

웃긴 해변 사진들

광고 HomeTalk

무분별한 챗GPT
활용법 이제 그만

광고 패스트캠퍼

PDF 온라인 번역

광고 Monica

웃긴 해변 사진들

광고 TheFunPost

주요기사



선도지구 지정에 1가·2기 신
도시 희비쌍곡선



김동연 "기회소득 시발점은
예술인... 노고에 감사"



갈 곳 없는 가정 밖 청소년들
'든든한 울타리'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놓고 시끌



[기호일보 '글 쓰며 놀아 봐
요'] 여섯 번째 교실



"수도권매립지 계속 사용" 환
경부 장관 발언에 발칵

기호일보

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32 비전타워 14층

전화 : 총무국 032-761-0007~8 편집국 032-761-0004~6 디지털뉴스부 032-761-0009 | 팩스 : 032-761-0015

경기본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4 (기아자동차 빌딩 4층) | 전화 : 031-898-6767~8 | 팩스 : 031-898-6769

경기북부본사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7 11층 1102호 | 전화 : 031-872-2990 | 팩스 : 031-872-2991

등록번호 : 인천 아01548 | 등록일 : 2021-07-16 | 발행인 : 서강훈 | 편집인 : 한창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4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ihoilbo.co.kr

윤리강령 독자위원회 사내게시판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회사소개

인사말 찾아오시는길

조직 및 연락처

고객센터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문의

불편신고 제휴문의

저작권문의